



마 / *Dioscorea batatas* Decne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마속 |
| 과국명 | 마과 |

| | |
|------|---|
| 과명 | Dioscore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마과 덩굴성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자라며 중국, 일본, 대만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한국(제주), 중국, 일본, 대만</p> <p>형태 : 덩굴성 여러해살이풀 이다.</p> <p>크기 : 길이 1m 이상.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6월, 7월</p> <p>자주색을 띤 잎은 갈라지지 않은 모양이고,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마주나기 또는 돌려나기 한다. 잎자루는 자주색이고 잎몸은 세모 모양이다. 양면에는 털이 없고 심장저이다.</p> <p>꽃은 6~7월에 피고 꽃자루가 없는 하얀색 이삭꽃차례로 달린다. 꽃차례는 1~3개씩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암꽃과 수꽃은 각각 다른 그루에서 핀다. 수꽃은 곧게 서고 암꽃은 아래로 처진다. 꽃덮이는 6장이고 수술도 6개이다. 암꽃차례에는 몇 개의 암꽃이 달리며 꽃덮이조각으로 되어 있고 짧은 암술대가 있다. 씨방은 꽃받침 밑에 있다.</p> <p>열매는 삭과고 3개의 날개가 있으며 둥근 날개가 달린 씨앗이 들어 있다. 9~10월에 익는다.</p> <p>줄기는 자주색이고 잎겨드랑이에 짧은 비늘줄기가 있다.</p> <p>덩이뿌리는 원기둥처럼 생긴 곤봉 모양이고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다. 또한 해마다 새것과 묵은 것이 바뀌며 하얀색이고 미끈하며 윤기가 있다.</p> <p>산에서 스스로 나고 자라기도 하며 밭에 심기도 한다. 재배하기에는 따뜻한 지방이 좋다. 겉흙이 깊고 모래가 많이 섞였으면서도 기름진 땅이 가장 적당하다. 겉흙이 얇고 돌이 많은 땅에서는 길고 굵은 덩이뿌리가 성장할 수 없으므로 재배에 적당하지 못하다.</p> |